

인적 쇠신 '칼날' 빼든 윤장현...측근 배제 '공감 행정' 이룰까

광주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장 등 일괄 사표 지시

선거 캠프 보은 인사 '음침마속'...시정 분위기 쇄신

윤장현 광주시장이 2017년 새해 벽두부터 '쇠신'의 칼을 빼들었다. 광주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 공공 기관장들의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선 것이다.

올해 시정의 비전과 과제로 '공감 행정'과 '산업지형 재편'을 꼽았던 윤 시장이 최근 일부 광주시 산하 공기업, 출연 기관장들에게 지시한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일부 기관장들은 이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측근 비리 의혹과 최근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이 조직 내 내분 등으로 사퇴하면서 산하 기관 임원들의 인적 쇄신을 통해 새롭게 후반기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윤 시장

의 지인인 '측근인사', '보은인사'로 불렸던 임원들부터 자진 사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4일 "새해들어 광주시정의 전반적인 일신(一新) 차원의 인적 쇄신에 나서기 위해 최근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들에 대한 자진 사퇴형식의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측근으로 불리는 임원들과 '선거 캠프' 관계자들부터 자진 사표를 권유하는 등 시장께서 '음침마속'의 심정으로 결정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표를 받은 뒤 사표 수리와 반려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임원들은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현재 광주시 산하 공기업은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4곳이며,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출연기관이 17곳이다. 여기에 출자기관 2곳, 기타 법인 3곳 등으로 모두 26곳이다.

이 가운데 광주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광주비엔날레,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여성재단, 국제기후환경센터, 평생교육진흥원장 등 8곳의 임원들은 올해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이들이 '사표 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대부분의 임원들이 인사 당시 '측근 인사' '보은인사' 등의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윤 시장이 고강도 인적쇄신에 나선 경우 대상자 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는 많이 남아있지만, 소위 측근이나 선거캠프 인사로 분류되는 임원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정 안팎의 분위기다.

이날 현재 서영진 광주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윤 시장이 고강도 인적쇄신에 나선 것은 그동안의 인사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고 올해 시정 비전과 과제로 꼽은 '공감 행정'을 위해 시정 분위기를 새롭게 이끌어 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청소원·복권 판매 직업 10년내 로봇으로 대체 고용정보원 전문가 설문

앞으로 10년 이내에 국내 직업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로봇으로 대체될 위험이 큰 직업군에 속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내 인공지능·로봇 전문가 2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기술 발전에 따라 현재 사람의 업무수행 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인공지능·로봇으로 대체될 것인지 7점 만점 기준으로 물었더니, 2016년에는 2.76점, 2020년 3.57점, 2025년에는 4.29점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2025년이면 인공지능·로봇의 기술 수준이 사람의 직업능력을 상당 부분 대신할 정도로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문가 평가를 근거로 인공지능·로봇의 직업별 대체비용을 구한 결과 청소원, 주방보조원, 매표원, 복권판매원, 낙농업 종사자, 주차관리원 등 단순직의 대체 가능성이 크게 나왔다.



“위안부 문제 해결” 수요집회 25주년 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64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김원욱 할머니(왼쪽부터), 김복동 할머니가 풍물놀이 공연을 보고 있다. 1992년 1월 8일 시작된 수요집회는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다. /연합뉴스

특검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피의자 소환”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피의자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냐"는 질문에 "소환할 때 밝혀졌다"면서도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화예술인들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12개 문화예술단체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작성을 지시하고 정부 지원 사업 참여를 막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이들을 포함한 여러 관련자를 특검에 고발했다.

지난달 26일 김 전 실장 자택과 조 장관의 집무실·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이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희범·정관주 전 차관, 모철민·김삼률·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전날엔 유동훈 현 문화부 2차관도 불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몸통'으로 꼽히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소환에 앞서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울러 특검팀은 이달 2일 김기춘 전 실장의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전 실장은 국가정보원장도 지냈다.

이 특검보는 "이 전 실장의 자택 압수수색은 비서실장 재직 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있는지 확인차 진행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대상이 될 경우 일반적으로 지위는 피의자로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참고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국회 국정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특검이 국정특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안이다.

이후 김기춘 전 실장, 김희범·정관주 전 차관, 모철민·김삼률·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전날엔 유동훈 현 문화부 2차관도 불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몸통'으로 꼽히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소환에 앞서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울러 특검팀은 이달 2일 김기춘 전 실장의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전 실장은 국가정보원장도 지냈다.

이 특검보는 "이 전 실장의 자택 압수수색은 비서실장 재직 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있는지 확인차 진행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대상이 될 경우 일반적으로 지위는 피의자로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참고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국회 국정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특검이 국정특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안이다.

연합뉴스

전정환 '새마을 훈장' 27년만에 뒤늦게 취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정환씨가 받았던 국가 훈장이 취소됐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취소 사유가 발생한 지 27년 만이다.

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14일 전씨 등 39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다. 전정환씨 외에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강신성일 전 국회의원 등도 과거 받았던 훈장이 취소됐다.

전씨의 경우 1987년 새마을훈장지립장을 받은 지 2년 만인 198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이어졌음에도 정부는 오랜 기간 훈장을 취소하지 않았다. 지난해 초 감사원의 행정부 기관운영 감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이나 성폭행 범죄자도 훈·포장을 유지하는 등 서훈 대상자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심판이 시작되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받은 무궁화대훈장이 대한 취소 가능 여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재임 때 주는 것이라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유라, 교수 6명에 학점취득 코치받아”

민주당 김병욱 의원, 교육부 자료 분석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올해 1학기 이화여대 학장실에서 교수들과 상담을 받고 학점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 코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덴마크 현지법원 심리과정에서 "학점이 잘 나온 이유를 모른다"고 진술했던 정씨의 주장과 달리, 대학 측이 조직적으로 정씨의 학점을 챙겨주고 이를 정씨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4일 교육부 감사관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경희 총장을 포함한 이대에서 올해 1학기 정씨를 만났다고 진술한 교수는 6명으로 나타났다.

이미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까지 포함하면 7명 이상의 교수들이 정씨와 접촉한 셈이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우선 기준에 알려진

대로 최 총장은 올해 4월 총장실에서 최씨와 정씨 모녀를 동시에 만나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격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 역시 비슷한 시기에 최씨와 정씨를 학장실에서 만났으며, 이때 학장실에는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과장과 이경숙 교수가 동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과장과 이 교수는 이후 각자 연구실로 이동해 최씨와 정씨에게 상담을 해줬다.

이때 정씨와 만난 이 학과장은 다시 학과장실에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A씨와 시간강사 B씨를 불렀다.

감사 자료에는 학과장실로 불려온 A씨와 B씨가 최씨와 정씨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결국 지난해 4월 이후 최 총장, 김 전 학과장, 이 학과장, 이 교수, A 초빙교수, B 강사 등 6명이 돌아가면서 최씨와 정씨에게 학점 상담을 해 준 셈이 된다.

이 중 김 전 학과장의 경우 지난해 9월에도 정씨를 만나 학사 상담을 했다고 조사됐다.

한편 정씨는 전남 덴마크 현지법원 심리에서 출석 불참에도 학점이 좋게 나온 것에 대해 "의외하게 생각했다"며 "2016년에 대학(이화여대)에 딱 한 번 가서 최 총장과 류 교수를 만났다. 이후엔 전화통화로만 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미수금 회수대행 - 못받은 돈 -

▶채권 추심(회수) 전문

- 민사 채권: 판결문, 공증 외
- 상사 채권: 물품/공사/용역/매매대금, 장비대여 대금, 상가보증금 외

▶채무자(개인·법인) 재산 및 신용조사 (부동산, 차량, 중기, 거래은행, 신용상태 등)

▶연락두절 채무자 및 실거주지 파악

▶차용증, 각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 거래장부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명쾌한 상담 가능!

채권 추심 경력 20년 노하우

새한신용정보(주) (금감위 허가업체)
010-8607-1122 (전남대 법대출업)
(062) 513-4307

정직·성실, 최선을 다해 회수해 드립니다

혈당조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코디셉스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코디셉스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초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 검색

※이벤트 신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삼백배(홍나무뿌리)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2017학년도 광주국제기독교학교 신입생 추가모집

광주국제기독교학교(GCDS)는 크리스찬 특목학교로서 영성·영어·자율의 정신에 기초하여 올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유학의 꿈을 지닌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미국의 크리스찬 사립고교, 칼리지와 자매 결연을 통해 학생을 개개인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과 신앙 공동체 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주님의 일꾼을 양육하고자 합니다.

▶설립자 이 환 수 박사
▶서훈, 광주이고 졸업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졸업
▶전. 텍사스 한인회 회장
▶현. 텍사스 ChemLose lab 회장

1. 교육과정

- 미국 고교 편입 및 입학
- 미국 칼리지 편입 및 입학
- 미국 4년제 대학 편입
- 국제반 - 초등 중등 과정(유학)
- 미국 현지 실시간 화상영어 과정
- 국제반 - 초등 중등 과정(국내대학)
- English Summer Camp
- 미국 텍사스 탐방 캠프
- 국제반 - 고등과정 (유학)
- 국내반 - 고등과정 (국내대학)
- 미국 대학 진학과정 (유학)

2. 특 전

- 크리스찬 우대
- 소수정원제 수업
- 최상의 기숙사 원비
- 미국의 기숙사까지 미국 현지 본교(GCDS)
- 담당자의 지속적 학사관리
- 다수의 미국 현지 고교, 대학들과 최적인 교육 인프라를 통하여 미국 고교 편입과 미국 4년제 대학에 편입하게 됩니다.

3. 신입생 추가모집 및 입학설명회

▶대상

- 국내 중·고교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
- 국내대학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생
- 미국고교 및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

▶모집과정 및 인원

- 국제반 0명 초등 중등과정(유학)
- 국내반 00명 초등 중등과정(국내대학)
- 국제반 0명 고등과정(유학)
- 국내반 00명 고등과정(국내대학)
- 일시 : 2017.1.5(목) ~ 2017.1.16(월) 오전 11:00시 ~ 12:00시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국제기독교학교 홈페이지 참조 (www.gc-ds.com)
- 광주국제기독교학교 입학 담당자 Tel : 061-381-0000
-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 동동길 42-34 (성도리 산 7) Tel : 061-381-1365

직원구함

-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수학, 국어 강사
- 관리직 직원

광주국제기독교학교